

경기:수도권 규제 철폐와 연계한 전략적 도시 개발

- 철도중심의교통체계개편및기성시가지정비도추진될듯 -

이번경기도지방선거의주요이슈는김문수 후보의 ‘ 수도권 규제 철폐 와 진대제 후보의 ‘ 일자리 창출 이었다. 지방 선거를 위한 각종토론회는이두이슈를중심으로 접전에 접전을 거듭하며 자웅을 겨루었다. 그러나마치 ‘ 달같이 먼져냐, 닭이먼져냐 ’ 하는논쟁처럼분명한결론을맺지못했다.

그것은 이번 지방 선거에서 지역 이슈보다는 중앙정치이슈가 보다큰영향력을 발휘하였기 때문이다. 어쨌든두이슈에 대해 보다깊은논쟁이이루어져야 하는데, 정책 형성사이면서 정책 소비자이기도 한 도민들로서는아쉽기만 하다. 이 두이슈는 경기 도정의 운영 기초와 전략을 결정하는 핵심 코드이며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를 형성하고있다.

국토 경영 전략에 대한 문제 의식

지방 선거 토론회를 보면서 수도권 규제 철폐라는이슈의이면에자리잡고있는, 보다본질적인이슈를발견할수있었다. 그것은현정부가추진하고있는국가균형발전 정책에대한문제 의식이라할것이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은행정기관및공공기관의 이전(행정중심 복합도시 및 혁신도시)과 정부혁신및지방분권(지역혁신역량 강화)을 통해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동북아 경제 중심을 달성한다는 거시적 논리 구조를 기반으로 삼고있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정책은내부적모순으로인해 정책적균열을낳고있으며정치적지지를상실해가고있다.



철도 시설의 확충

공사명	구 간	노선연장	사업비
경원선 복선 연장	동안~소요산	2.4km	197억원
암사~별내간 광역철도 건설	암사~교문~별내	15km	1조원
서북부광역철도 건설	서울 2호선 홍대~7호선 상암~일산장항~파주운정~통일동산	34.2km	2조 2,000억원
서남부광역철도 건설	고양대곡~김포공항~부천	19km	1조 1,000억원

주: 경원선연장및암사~별내구간은정부재정사업으로추진, 서북부광역철도는민간투자사업으로추진하고서남부광역철도는광역철도사업으로추진(국가75%, 지방25% 부담).

한편으로, 공공기관이전의 중앙 집권적 추진과정에서 지방 분권 정책은 실종되었고, 지방 정부의 중앙 정부에 대한 의존성만을 강화시켰다. 그과정에서 수도권 규제는 더

욱 강화되고 개선은 장기적인 과제로 넘겨지고말았다.

이러한 국가 정책의 전개가 수도권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

할 것이라는 우려가 국가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경기도 민선 4기의 문제 의식이다. 이것은 지방선거 후 수도권 규제 철폐를 대신 하여 수도권은 이 수도권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수도권 규제 철폐가 단순히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비합리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가 경쟁력의 중추인 수도권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가 발전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라 할 것이다.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체계 구축

현 정부는 수도권의 과밀 해소와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의 이전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수도권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수도권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수도권 개발 제한 구역 조정 가능지의 대부분을 지방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밀도의 국민 임대 주택 단지로 개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적지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 입안권을 사실상 중앙 정부가 회수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민선 4기는 이러한 정부의 모순적인 정책 추진이 수도권의 난개발을 조장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으며, 1990년대의 수도권 난개발역시 중앙집권적인 도시 개발 체계에 의한 것이라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출범과 동시에 국토 도시 계획의 중앙집권적 전횡을 막기 위한 법 개정 운동을 전개하고,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월 의원 입법으로서 발의된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법률」안은 이를 위한 사전적 포석이었다고 할 것이다.

수도권 규제 개선과 연계한 도시 개발

이러한 공간 경영 전략 위에서 경기도 민

선 4기는 철도 중심의 교통 체계 개편과 간선 도로망의 기능 제고를 추진하고 이에 기반하여 신도시 개발과 기성 시가지 재정비 등의 뉴타운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에 의하면, 2020년의 경기도 인구는 2009년 현재의 1,085만 명보다 26만 명이 많은 약 1,34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추가적인 인구 증가를 계획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전략적인 도시 개발과 기성 시가지의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동안 베드타운으로서 서울에 인접한 지역에 국한하여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신도시 개발 사업은 기업 입지와 연계하여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은 수도권 공간 구조의 다핵화를 촉진하여 수도권 과밀 문제를 해소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수도권 규제가 지속된다면, 신도시 개발 사업은 중앙 정부 주도의 택지 개발 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서울의 위성 도시 내지 베드타운의 역할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그동안 경기도는 도시 계획 결정만 하고 실제로는 예산 부족으로 조성하지 못한 미집행 시설이 막대하여 본격적인 기성 시가지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어려웠다. 2009년 현재, 경기도의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내의 사유지의 보상 예상액은 공시지가만으로 환산해도 약 27조 원에 달하여 기성 시가지의 본격적인 정비가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 국비 지원 등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기성 시가지의 정비가 경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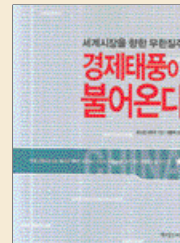
공간 경영 전략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김재국
경기개발연구원 도시지역 계획 연구부장

도서 안내

경제대풍이 불어온다-세계시장을 향한 무한 질주

조나단 스토리 지음/최종옥 옮김/책이 있는 마을 펴냄



넓은 땅과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경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빛을 보지 못했던 중국. 그러나 이제 중국이 변하고 있다. WTO 가입 이후 경제 면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 책은 중국 현지 상황을 국유 기업이나 집단 사유제 기업 등 국내 기업들과 공산 정권과의 관계에서 면밀히 분석하였다.

린 6 시그마(서비스 산업 분야를 위한)

Michael L. George 지음/한국맥그로힐 펴냄 3쪽



고객 만족, 비용 감소, 품질 향상, 공정 속도 향상, 그리고 투하 자본 회수율의 향상을 통한 기업 가치 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인 '린 6 시그마'이다. 이는 6 시그마와 린 기법을 통합한 이론으로 두

가지 개별적 방법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의 보완을 통해 극도의 경영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이론으로 이 책 전체를 통해 실제 성공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제조업 부분을 벗어나 은행, 정부, 호텔 등의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도 린 기법과 6 시그마를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 산서성 고건축 기행

김홍식 지음/고조원 펴냄 27쪽



중국 건축 기행문. 이 책은 오대산부터 운강석굴까지, 우리와 닮은 문화 유산을 발견하는 기행문으로 저자가 실제 다녀온 기행문으로 여행자의 입장에서 현재 중국의 모습과 문화에 대한 견문 및

감상을 곁들여 실어 실제 여행의 맛을 더해준다. 저자는 이 책에서 중국 고건축(특히 불교 사석가람)의 복원 모습을 지켜보고 참고하여 아직까지 실마리가 잡히지 않고 있는 황룡사 9층탑의 복원에 힘써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 ㉠